

제  
12  
호

# 춘천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 조남진 편집인 : 조종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61)256-1260-1 FAX(0361)257-1260

## 활력찾는 춘천기독교연합회

- 10월 18일부터 성시화 연합 복음 선교대회 개최 -
- 단군상건립 반대운동 전개키로 -
- 광복절 연합예배 헌금전액 수재민 지원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광국 목사)는 8월 7일 오전7시 강원대학 태백관 중강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당면한 8·15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를 8월 15일 오후 7시30분 유명강사 목사를 초청, 석사감리교회당에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조국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으며 이날 드린 헌금은 전액을 수재민을 돕는데 사용키로 하였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의감리교회 담임목사인 이호문 감독

을 강사로 모시고 춘천성시화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복음 전도로 세친년 세친을"이란 주제 아래 "춘천성시화를 위한 '99 시민초청 연합 복음 선교대회"라는 명칭으로 선교대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춘천의 복음화와 성시화에 모든 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드려진 헌금은 남북결식 어린이 돕기와 성시본부 지원에 쓰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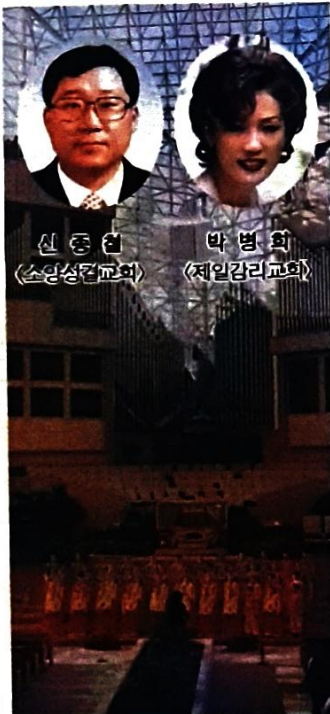
김광국 목사는 예배설교(롬16:1~3)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로마, 소아시아, 그리스, 헬라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의 협력 때문이었다며 춘천지역의 큰교회, 작은교회 모두가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춘천

의 복음화와 성시화운동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8·15 광복절 예배 이후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독교연합회와 성시운동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CBS 소년소녀합창단 미주 순회 찬양선교 큰 결실

- 단장 신종철 지휘 박병희 45명 단원과 함께 -



CBS춘천방송(본부장 한국연)은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끌고 미국서부지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공연은 LA지역에 있는 충현선교교회와 크리스탈교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계선교침례교회, 디즈니랜드 야외공연장에서 순회공연을 하였으며 그랜드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후버댐,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미서부지역 관광도 함께 하였다.

단원 45명과 스태프, 부모 등 61명으로 구성된 CBS소년소녀합창단 미주 순회공연팀은 이번 연주회를 통해 재미동포와 외국인들에게 복음성가와 한국민요, 동요, 가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전달과 함께 찬양선교라는 큰 결실을 얻었다.

CBS소년소녀합창단은 앞으로도 국내·외 각종 공연을 통해 찬양선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오는 10월 9일(토) 오후5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정기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 제5회 세계기독교신도 평화선교대회 중국 연길서 개최

- 명예 대회장 김옥선 장로 대회장 이학규 장로 백두산 등 5개지역에서 간절한 기도와 전도 -



이 학 규 장로  
< 성시본부 사무총장 >

일 중국 연길과 백두산 등지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기독교신도들이 모여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순수복음선교대회이자 앞으로 이 대회는 백두산과 한라산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영적 3국통일을 기원하게 된다. 세계기독교신도연맹 실행위원회에서는 이 대회의 대회장에 이학규장로(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기감 전국장로연합회 부회장)를, 명예 대회장에는 김옥선 장로(전 국회의원)를 추대하였다.

이학규 장로는 8월 27일 출국하여 심양, 연길, 백두산, 용정, 북경 등을 거치면서 기도와 선교의 씨를 뿌리고 9월 2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스라엘·한국정부의 사단법인체로 승인받은 세계기독교신도연맹(총재 박인각장로)은 제5회 세계기독교신도 평화선교대회를 오는 8월 28일과 30

##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양식

## 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버리자

(히 12:1~2절 말씀)

이 원 호 목사  
(소양성결교회)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는 순간부터 계속 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봉사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애 겁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현재 내가 뛰고 있느냐 뛰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은 것

들을 걸치고 뛰면 쉬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경기장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걸 벗어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욕심 많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욕심 많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엄청난 축복, 그 이상 바랄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면서 끝에 가서는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빨리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장에서는 주님과 나 1대 1의 관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 했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홀로 떠나는 것은 대단히 고독한 전투입니다. 엄매이기 쉬운 무거운 죄를 벗어나버리고 쫓겨나 향하여 뛰어가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

(엡4장 11~12절 말씀)

장 호 근 목사  
(동성장로교회)

사도바울은 너희들에게 직분과 직책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사명과 소명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도행전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무데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닦은 터전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지체로써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속에서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기둥이 되지 아니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다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동요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진리의 기둥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와 헛되니라.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리의 기둥이 되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면 지붕은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모든것은 헛수고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

교회가 부흥되는 데는 교회가 교회되는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 교회당지 못한 것, 교회로서 해산 안될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그간 알게 모르게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다시 반성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럴때 교회는 부흥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바울의 용기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나의 나뭇줄을 깨끗이 부정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덴에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외치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약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인지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특히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

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자기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리를 떠났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되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교회로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기복적 신앙, 복 달라고 비는 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적인 것에 이끌려 휘청거려선 안됩니다. 교회가 이럴 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쟁하는 교회에 대해서 귀중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되는 길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

## 천부교는 어떤 종교인가?

- 박태선 전도관이 개칭된 것 -

지난 7월 13일 춘천시 소양로에 거주하는 어떤 교인으로부터, 천부교회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히 알고자 하여 본사에 전화문의가 있어 답변해 준 일이 있다. 성도들은 이단 종파에 대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영의 눈을 밝게 뜨고 대처해야 하겠다.

## • 전도관의 유래와 주장

대한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라는 이름 대신에 천부교로 개명한 박태선은 1917년 평안북도 덕수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소학교를 마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낮에는 우유배달과 신문팔이를 하면서 밤에는 공업학교에서 공부하였다.

2차대전 때 귀국하여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집사직을 맡고 청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1955년 무학교회 집회를 계기로 전국 순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용산구 원효로에 중앙 전도관을 개관했다. 이후 기존 교회를 침투하여 한음사건, 횡령과 폭행, 부정선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 구금되는 등 옥고를 치렀다. 1957년 경기도 소사(현재

의 부천)에 제1차 신앙촌을 건설, 1960년대 덕소에 신앙촌을 세워 전성기를 이루다가 1970년대 이후 쇠퇴하여 오늘날에는 공장과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그후 1980년부터는 전도관을 천부교로 개칭하고 자신이 새 하나님이라고 하여, 나이는 1조5천억세라고 주장하고 소위 섹스 안찰과 생수공급이라는 작태를 자행하였다. 마침내 1983년 전도관의 성도들이 집단적으로 정화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주 박태선을 성도하는 성명서를 일간신문에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영모담으로 불리우는 박태선은 자신이 '동방의 의인'이며, 자신의 출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신앙촌에 입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박태선 자신은 "새 하느님"이라 한다. 기성 교회가 믿는 하느님은 칠장속에 갇혀서 새하느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삼위일체 중 성령은 감람나무이며, 감람나무는 박태선이니 박태선은 성령"이라고 주장한다. (3면계속)

기독교계 뉴스

## 한국 장로교 연합회 연합예배 드린다

- 설교 임신영 목사, 동부장로교회 -

한장연 춘천연합회는 지난 8월 8일 오후 7시30분 춘천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에서 회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다.

임신영 목사는 설교(롬8:28)에서 춘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춘천성시화를 이루자고 강조하였다.

## 성시본부장, 개교회 목사님 방문 지도협력 요청

조남진 본부장과 이학규 사무총장 등은 각 교회 목사님들을 방문하고 성시화 사업에 대한 지도와 협력을 구하고 있으며 7월 6일부터 교역자 연합회장 정상교 목사님(샘밭침례교회)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을 방문하여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받고 있다.

많은 목사님들은 성시화 사업에 적극 동참 협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격려와 함께 힘을 실어 주었다고 한다. 이들은 성시화의 연합을 위하여 모든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 <2면 계속 천부교>

전도관의 구원관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타락은 피의 변질에 있기 때문에 피가 깨끗한 박태선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깨끗한 피를 가진 자에게는 피가름, 곧 성적관계를 갖는 것(혼음)이 구원받는 길이요, 박태선은 동방의 의인이며 감람나무로 왔기 때문에 구원을 준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박태선은 자기를 "이진자"라고 자처하고 "백마탄 자"라고 자처하는가 하면, 자기가 생수를 받았다고 하여 소위 생수 축복, 생수 안찰을 하였다. 예수를 x새끼요, 마귀대장의 아들이라고 규탄하고 성경은 98%가 거짓말 투성이고 자신은 40일 금식기도를 13회나 했는데 예수는 한번밖에 못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박태선은 혼음사건과 사기행각, 안찰기도와

생수축복 등의 범죄행위로 지금은 그 모든 기독교적 색채를 배제하는 적그리스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 • 기성교회가 해야 할 일

한때 백만 신도의 교세를 자랑하던 박태선 전도관의 교세는 198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986년 7월말 4천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박태선의 공식 재산은 2,350억이라고 하나 사실상 약 6천억쯤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요, 삿꾼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케 한(마24:5)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천부교의 교주 박태선이다. 이러한 때 우리 기성교회는 반성하고 자체 정비를 해야 할 때가 온 줄로 깨달아 새로운 교회 갱신 운동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동원 소식지에서)

## 성시신문 운영위원회 매월 운영

춘천성시신문 운영위원회는 매월1회 이상 회의를 갖고 신문발행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보도내용과 편집을 협의하며 독자들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토의하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활동사항과 미담자료를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운영위원회의에서는 "명예기자" 모집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성시신문을 만드는 일

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고 기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교회, 선교회, 기독교인 경영사업체 소식, 성도나 불신자의 모범적인 미담사례, 시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일까지 쟁길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 결정하였다.

명예기자로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열심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 '99광복절 연합예배 성대히 드리기로

- 초교과 300여 교회 합동으로 석사감리교회당에서 -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광국목사)는 금년 8·15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를 8월 15일 오후 7시30분 석사감리교회당에서 춘천지역 300여 교회가 합

동으로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으며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조국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순복음 호반교회 창립예배 드린다

7월 12일 정오 춘천시 후평3동 703-17번지 건물 2층에 마련한 순복음 호반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강원지방회(회장 김석규목사) 주관으로 10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이 함께 모여 성대하게 창립예배를 드렸다. 담임교역자는 송난희 전도사(남편 최계천 안수집사)로서 여성의 특성을 발휘하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 성시신문 명예기자 모집

- 춘천 300여 교회마다 1~5명 -

춘천성시화를 가속화하고 시민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민원사항을 수집하여 해소하는 일과 각 교회, 연합회, 선교회의 활동, 기독교인들의 모범적인 일, 애로되는 일들을 신문지상에 보도함으로써 서로 알고 협력하여 교인들의 결집된 역량을 통하여 춘천의 기독교인과 시민들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고자 명예기자를 모집하는 것이오니 적극 동참 바랍니다.

- 모집인원 : 각 교회별 남·여 1~3명(큰교회 2~5명, 작은교회 1~2명)
- 모집기간 : (1차) 8월 31일까지 (2차) 추후공고
- 응모방법 : 목사님 또는 장로님의 추천, 또는 개인별 응모도 가능함
- 응모자격 : 교회에 소속된 장년, 청년  
(연령, 학력, 신급, 경력, 성별 제한없음)
- 합격통지 : 개별면담, 신문운영위원회 심사 결정 후 개별 통지
- 기타 : 전화 연락주시면 서식을 보내드립니다.

\* 가정, 직장, 교회생활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자료는 전화 또는 문서로 가능합니다.

## 기독교계 뉴-스

■ 장로교(통합) 춘천시찰 및 남시찰 남신교회는 7월 17일 새벽 오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합 체육대회를 열고 성도들의 건강 증진과 친교를 나누었으며 신앙 향상 및 연합사업에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8월 2일 강원노회 임시노회가 장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 장로교(합동)강원노회 여전도회 수련회가 16~17일 광성기도원에서 있었고 전국장로회 연합수련회가 16~18일 성우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 감리교 춘천 남지방 남신교회 연합회 임원회 및 헌신예배가 7월 25일 저녁6시 창대교회(김영분 목사)에서 있었다.

■ 동부연회 부흥선교단은 8월 1일~4일 제천 봉암 명암기도원에서 박연훈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중·고등부 연합성회를 가졌으며, 동부연회 평신도 여름수련회가 8월 2~4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수련원에서(강사: 정영관 목사) 열렸다.

■ 선교특공대·이슬비전도대 연합수련회가 8월 9~11일 오대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고, 동부연회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는 '99광복절 기념 통일기도회'를 14일 가나안 농군학교 일가 기념예배당에서 가졌다.

■ 감리교 춘천 동지방 교역자(회장 차관식 목사) 성막 세미나가 8월 30일~9월 1일까지 경기도에 있는 갈보리 수양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 ◆ 춘천제일성결교회(박상철 목사)

8월 9일부터 제8기 예비엘터 모임을 가졌으며 8월 27일, 30일 가나안 농군학교와 신천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다.

## ◆ 후평중앙감리교회(양한영 목사)

7월 19~21일 본교회당에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중·고등부 수련회를 26~28일 서면 퇴골에서 가졌다.

## ◆ 대광장로교회(정하영 목사)

7월 26~28일 하계여름성경학교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본교회당에서 실시하였으며 29일 자매결연한 서울 영은장로교회 주최로 당림리마을 주민잔치를 배설하였다.

## ◆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

8월 2~4일 제2청년회 여름수련회를 양양 우암순복음교회에서 가졌으며 11~14일 갈보리기도원에서 제1청년회 수련회가 있었다. 순복음직장선교회(김용현장로)주최 초교파 전국 직장인 일반성도 초청 금식 대성회가 7월 19~22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있었다.

## ◆ 남춘천감리교회(유진철 목사)

7월 28~31일 당림리 갈보리기도원에서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가졌고 5~7일 제2청년부 집회가 양평 한화콘도에서 있었으며 26일 내고향가든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위회를 가졌다.

## ◆ 성광장로교회(김광국 목사)

8월 4~7일 고성 동광교회에서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1일 저녁 본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발표의 밤을 가졌다.

## ◆ 평화감리교회(한 군 목사)

전교인 여름수련회를 8월 9~12일 고성 재버리수련장에서 열었으며, 13일 저녁 7시30분 서울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모임" 합창단 연주회가

본교회당에서 있었다.

16~20일 영어예배를 위한 영어강의가 주간반(오전10시~오후4시), 야간반(오후6시~10시)으로 나뉘어 있을 예정이다.

## ◆ 제일장로교회(박상호 목사)

7월 28~31일 에브라임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기도회를 가졌으며 8월 2~4일 청년부 수련회가 당림리에서 있었다.

## ◆ 동원감리교회(정상문 목사)

아동부 하계 수련회를 7월 19~22일 '꿈을 지닌 주의 어린이'라는 주제로 본교회에서 가졌으며 26일부터 29일까지 '99중·고 연합수련회'를, 28일부터 31일까지 대·청 여름수련회를 주문진 강원도립대학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아동부 물놀이, 고등부 음식만들기, 청년부 소식지 보내기 등 행사가 있었으며, 22일 유치부 월말 시상식과 아동부 내썬자랑이 있을 예정이다.

## ◆ 중앙성결교회(윤철중 목사)

8월 1일 오후 대학·청년부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2~4일 지암리 산장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라는 표어를 걸고 중등부 수련회를 열어 영적성장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2~5일 한얼산 기도원에서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 ◆ 임택항 목사(석사감리교회)

8월 2~6일 나라의 안정과 경찰 복음화를 위한 대성회에 참석하였으며 본교회 여선교회 회장단은 8월 6일 갈멜산 기도원에서 회의 및 기도회를 가졌고, 8월 8일 낮예배 후 성도들을 대상으로 월드비전의 "남북한 굶주리는 어린이 돕기" 사업에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8월 29일~9월 1일 본교회당에서 김해종감독을 강사로 모시고 "1속1 가장 존중" 심령부흥회를 가질 예정이다.

## 북강원노회 주최 성경고사·찬양경연대회 개최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북강원노회 주최 교회학교 초·중·고등부 성경고사 대회 및 찬양경연대회가 오는 8월 17일 인제장로교회(정영분 목사)에서 개최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지식을 폭넓게 익히게 하고 가스펠송 등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은누리장로교회 박옥화권사 제보)

## 여름철 교회 어린이 청소년 특별활동에 신앙성장

-3교회 합동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운영,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연합 청소년수련회, 교회와 야외에서 방학기간 신앙활동-

99년 하계 방학기간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의 여름성경학교와 야외 수련회가 7월 18일부터 8월초까지 모든 교회별로 행편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특별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과 체력증진, 영적성장 기회를 가졌다. 서부감리교회(노정관 목사)는 군자(남궁만 목사), 의암교회(박성철 목사)를 초청, 합

동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사랑감리교회(염명동 목사)와 서로사랑장로교회(김준언 목사)는 청년연합수련회의 기회를 마련, 교파를 초월한 유익한 경험을 쌓게 하였고 여타 교회는 교회별로 교회시설과 자연속에서 특별활동으로 무더운 여름철 신앙성장 훈련을 실시하였다.



동부장로교회 창립60주년기념 전교인수련회모습.



서울영은 장로교회 최철규전도사의 지도로 당림리 마당교 냇가에서 물놀이하는 대광장로교회 어린이들.



서부감리교회(이학연부 목사)에서 "희망을 지닌 주의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린 합동 여름성경학교 정면.



순복음 제일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하는 모습.



관아의 시험 · 1998년작 · 판넬에 혼합재료 10호 변형



김 춘 배

- 강원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졸업
- 강원미술대전(시민회관)
- 강원청년미술제(시민회관)
- 강원미술인연합전(갤러리 아침)
- 춘천미술 100년의 조감전(문예회관)
- 제1회 개인전(97. 3. 29~4. 11 춘천미술관)
- 춘천시 낙원동 116-11 7/1
- ☎ (H) 253-1277, (O) 255-1781

##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 교계 지도자 공청회 개최

- 한기총 유제하 총무, 중앙회 상임총무 조순태 목사 보고 -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을 위한 춘천지역 공청회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임택창 목사(공동대표회장)와 윤철중 목사(고문) 등 목회자들과 한승수 의원, 류종수 의원, 이민섭 위원장(초대 문체부장관, 전국교회 의원), 강원대학교 법대학장을 역임한 김진현 장로(강원대교수), 중앙회 상임총무인 조순태 목사, 한기총 총무인 유제하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 100여명이 석사감리교회당에 모여 1부 예배와 2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임택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는 윤철중 목사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능력있는 기도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 같이 춘천 도성의 주의 종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춘천 복음화를 이룩하자고 역설하였다.

박상호 목사(제일장로교회 당회장)의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을 위한 특별기도와 국가와 민족의 복음화 춘천성시화를 위한 합심기도가 있었다.

2부 공청회는 오승룡 목사(춘천성결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승수 의원과 류종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법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을 위해 기독교인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조순태 목사(중앙회 상임

총무)는 경과보고에서 기독교 재산관리는 감리교단을 시발로 지속적 운동을 전개한 결과, 시행령 등을 통해 완화된 부분도 있으나 모호한 경우 관행에 따라 불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된 경위와 타종교가 동조할 경우 이를 수렴하여 종교재산관리(보호)법으로 고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토론에 나선 이민섭 위원장은 장관 재임시 기독교 재산 관리를 위해 시행령들을 마련한 일들을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노력한 결과, 추진과정에 참가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독교 재산관리법보다는 종교재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김진현 교수는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은 꼭 필요한 법이고 종교법인법도 함께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방청석의 발언이 쏟아져 나와 기독교 재산관리법 제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으며 사회복지재단이 보호받는 것과 같이 일반 시민의 정신적 안식을 주는 복지시설인 기독교 재단도 반드시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도청 직장선교회 임원 개선

- 총회장 김봉옥, 총무 양승일 -

박무일 장로(도청선교회 총회장)는 7월 20일 오후 6시 30분 도청 신관상황실에서 전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고 일부 임원을 개선했으며 현안사업인 도내 나무행정 분야 직장선교회의 연합선교 대회 추진 및 성시신문 지원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총회 결과)

- 총회장 : 김봉옥 안수집사
- 부회장 : 김형선 안수집사, 서영선 집사
- 총무 : 양승일 집사
- 남선교회장 : 주기택 권사

## 홍천군청 선교회 헌신예배

- 모범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키로 -

홍천군청 선교회(회장 김차경 안수집사)는 8월 1일 오후 3시30분 홍천회망교회(김광섭 목사)에서 선교회 창립 이래 최초의 헌신예배를 드렸으며 모범학생(홍천여중 박영희, 홍천직훈 김진구)에게 각 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김차경 회장은 매분기별로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희망하는 교회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0366) 430-2367

H : 018-373-5561

(군, 선교회총무 이상순 장로)

##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소장 박무일 장로



강원도청 선교회 총회장으로 직장선교 사역에 앞장서 왔던 박무일 장로님은 7월 28일자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전 농민교육원)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앞으로 장로님은 몸담은 직장 선교회를 바탕으로 직장을 복음화 하는 일과 춘천 성시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 '99 평신도여름수련회 은혜충만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남선교회 연합회(회장 장구봉장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창 호령오대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제15회 99평신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였으며 초청 강사 장영관 목사는 3일간 특강에서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는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많은 일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참가한 400여명의 남신도들의 신앙심에 큰 변화와 도전을 주었다.

동부연회 김명기 감독은 우리 모두가 이워나아가 할 공동과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동참 열기 확산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845명, 4월 한달새 370명 -

김창수 목사  
(신성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춘천지회가 1월 18일 오전 11시 춘천신성감리교회에서 박진탁(운동본부장) 박상혁(강원지역본부장) 춘천지회장 김창수 목사(신성교회) 이광학 춘천성심병원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을 보았다.

장기기증법이 제정되고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전개한 운동으로써 춘천지역의 의학발전과 전도민운동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성스러운 일이며 살신성인의 현재적 실천이라 할 것이다. 장기기증 강원본부는 98년 4월 원주에 설치되었고 올 1월 춘천지

회가 설립을 보았으며 강릉지회를 설립 중에 있다. 91년 서울본부 설립 이래 12개 지역본부와 미국 LA, 뉴욕 등 14개 본부가 네트워크로 수혜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현재 강원본부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은 골수, 신장, 각막, 시신기증자를 포함 356명이며 이들의 도움으로 3명이 신장, 각막 기증을 받아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다.

조정진 사무국장은 장기기증자가 있어도 병원에 수혜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이 약한게 가장 큰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기증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시켜 주었지만 내년 국립의료원 내에 장기기증 이식 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면 장기매매 같은 부작용을 막고 체계적인 장기기증 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남편의 회생을 위해 눈물의 세월을 살던 두 부부가 부인들의 신장 맞교환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살신성인의 실천이다.

♥ 장기기증 수혜 안내는 지역번호 없이 1588, 1589번이다.

## Youth With A Mission 예수 전도단

국제 예수전도단(YWAM : Youth With A Mission)은 로렌 커닝햄 목사에게 의해 1960년 창설된 이후, 세계 136개국 586개의 지부와 12,000명의 전임간사를 두고 있는 초교파 선교단체이며, 우리나라는 1973년 미국 남장로회 소속 로스(오대원) 선교사가 설립하였다.

예수전도단(대표 홍성건 목사)은 헌신된 젊은이들을 모아 훈련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7장 9~10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 구제, 전도 및 선교분야에서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전국 8개 지부가 있고 춘천에는 개

척팀으로 6명의 간사(대표 이동선)가 일하고 있는데, 대학사역, 직장인사역, 화요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평강장로교회(김현주 목사)에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또한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는 간사가 직접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도하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제 대학생 중심의 모임에서 중고생과 일반인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통이 편리한 춘천명동 부근에 모임 장소를 구하고 있다.

장소를 협조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연락처 : 춘천시 후평3동 831-11번 지 3층

☎ (0361)252-1128, FAX 241-5599



드라마워십 찬양모습



김거리 공공장소에서 드라마를 통한 선교장면

## 춘천지회 신장 기증 제호를 소망한 조남호 목사

- 춘천진주문교회 목사 부부와 교인 30명 사후장기기증 약속 -

조남호 목사  
(춘천진주문장로교회)

춘천진주문장로교회(담임 조남호 목사)는 지난 4월 18일 장기기증을 위한 예배를 드렸으며 이날 50여명의 성도 중 30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조남호牧사는 사후장기기증은 물론

신장기증을 약속하고 8월 3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이식수술을 하기 전 검진한 결과, 수술을 받기에 적합치 않다는 판정을 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귀가하였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장이식에 참여하게 된 이유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목사로서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싶었으며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목사님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이 귀감이 되어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춘천중보기도학교 제3기생 모집

- 9월초 월드비전 2층 강당에서 개강 -

춘천중보기도학교에서는 지난 2월 4일 문을 열고 8월 29일까지 12주간씩 2기 교육을 마쳤으며 9월초부터 12주간(매주 목요일 오후 7시)의 교육훈련을 거쳐 수료하며 수료자에게는 교회, 선교회 등 모임에서 기도인도 리더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아 능력있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이춘일 목사 (0361)261-3167  
성시화운동본부 (0361)256-1260

## 기도지원활동 본격 전개하기로

- 성시기도모임, 중보기도학교 기도 일꾼들 -

춘천성시화기도모임과 중보기도학교에서는 기도지원을 원하는 교회, 개인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도팀을 조직, 본격적인 기도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직장방문기도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문제, 친지 등의 건강문제, 신앙문제, 종교문제, 사업문제, 교회문제에 대한 기도제목 받아 훈련받은 기도 일꾼들이 팀이 되어 기도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하였다. 기도팀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World Vision 3층강당에서 나라와 민족, 모든 지도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어린이 양육과 시민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 기도반을 편성하고 요청받은 제목을 놓고 적극적인 기도를 하기로 하였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시본부 조충환 목사, 이학규 장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56-1260~1

## 예장 강원노회 교역자 세미나

- 강사 서울강변교회 김성길 목사 -

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노회장 나영목사)는 교역자 세미나를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춘천 베어스타운 2층의 암홀에서 가졌다.

도내 30여 목회자가 참석하였으며 김성길 목사는 "활동하는 제자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하였고, 기타 프로그램은 은혜장로교회 지용찬 목사가 진행하였다. 김성길 목사는 제자만들기란, 지적으로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 우리의 꿈 우리의 시명 춘천시

## 聖市化 운동에 대한 좌담

- 이윤구 박사와 교회 지도자들 -



이 윤 구 박사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지난 7월 19일 오전 10시 World Vision 강원지부장실에서 UN본부 협력을 위하여 하와이로 출국하기 전 춘천에 오신 이윤구 박사(남북통일후원 공동회장)님을 접견하고 춘천 성시화 운동과 성시신문에 대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춘천성시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로 보아도 그렇구요.

초대교회에는 본래 목사가 없었습니다. 전부 집사(디아콘)들이 있었지요.

요새 큰 사건이 나면 전부 교회 지도자나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와중에 춘천의 성시화는 생명의 샘물같은 느낌이 있어서 하와이에 가 있더라도 무료 비서노릇을 거기 앉아서 할게요.

다행히 한두달에 한번씩 나옵니다. 인제대학교에서 국제학 영어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나오는데, 일주일에 이틀만 하면 되요.

남은 날들은 교회 위해 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봉사하는 걸 잊었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성시화 운동이 몇년 안에 전국규모로 퍼져 나갈 것 같습니다. 청주, 인천, 대전 등 몇몇 군데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박사님은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님이 제안한 퇴직 고위 공직자의 전도 요원화 활용에 대하여 적극 찬동하면서 사회복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노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능력있고 연륜있는 사람들을 전부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각하느냐...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 계획이 잘만 되면 예전에 시장, 군수하던 사람이 거리에



서 휴지를 줍고 도지사하던 사람이 거리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성시화 아닙니까.

노인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 운동.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춘천에 보호대상자가 없어졌다면 나는 성시화란 이런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말씀 읽는 사람이 목이 뻣뻣해지지 않고 없다고 하는 슬픔이 없어지는 것. 그런 운동을 하면 바른 도시로 변화되고 시민들이 따라올 테니까요.

복음이란 게 그런겁니다. 다른 도시에서 '아! 춘천에서 그거해, 우리도 그

거하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시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애기한 내용이 글로 나와 다른 도시에서 읽게 하고 영향을 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리드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신문이 한국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읽히우는 신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글이 나와 보십시오.

교인들이 그걸 읽거든요. 이 성시신문을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비서노릇을 해 드리겠습니다.

## 성시칼럼

## 감사를 잃은 백성들이 많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일본이름으로 창씨개명 당하고 신앙의 자유마저 빼앗겨 버린 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여기고 나라를 찾는 일에 앞장 섰던 것이다. 일제의 박해 목격담을 기록한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는 일본인들이 기독교인 여학생 몇 명을 윤간했다. 여학생들은 새벽에 피투성이가 되어 감방에 돌아왔다.

여학생들을 취조할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노영렬이란 학생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며 이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고 만세를 부를테냐고 소리질렀다. 여학생들은 독립이 될 때까지 죽어도 중지할 수 없다고 외쳤다.

당시 기독교인은 인구의 15%인 30만명 밖에 안되었으나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독립선언문 서명자 33인 중 기독교인이 16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세운동이 전국 1,400여 곳에서 일어났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323곳 중 120여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 2100교회 30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거

사를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80교회가 전파 또는 전소되고 기독교계통 8개 학교가 파괴되었으며 교인 3,373명, 목사 54명, 전도사 127명, 장로 63명이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어린 여학생들이 투옥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인두와 칼로 고문당한 수기도 남아있다. 나라를 찾으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애국자들이 없었던들 해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나라를 찾기 위해 파홀리고 생명을 잃은 기독교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국조단군 운운하면서 단군상을 세우고 호국의 신으로 섬기려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은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기독교인들 까지도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마음이 아프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8·15를 맞으면서 조국광복의 그 날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언제나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란다.

## 거룩한 비전과 사랑의 흔적

성도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활력이 되고 동시에 스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현실성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인양 믿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 문화 정치 교통 통신 어느 면으로 보나 현실성 없는 허황된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진리의 말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주님께 영광일 때 비록 비지 않고 꺾여지지도 않지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물바깥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4:7)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소망과 비전이 있는 자는 늘 즐겁습니다.

춘천의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 춘천성시화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춘천성시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평신도 운동입니다. 1770년대에 세계지도를 살 돈이 없어 가족조각을 이어 세계지도를 그린 후 하나님께 "세계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영국의 윌리엄 캐리와 같은 열정으로 춘천시 지도를 끌어안고 기도한 사랑의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의 기독교인들이여! 특별히 춘천성시신문을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믿고 합성을 지르면 된다(구 신명기)다. 매주 목요일 월등비전(구 신명기) 건물 3층에서 이 합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역 하십시오. 어떤 불신앙인의 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와 나 없이도 얼마든지 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54:6에 "주께서 너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한가지를 잊지 마시고 풍성한 결실을 기도 드립시다.

(편집부 K목사)

## 지역과의 탐방

## 선교 현장 인도 비하르주 파르나

- 이영길 선교사 일행 97년부터 선교 -

인도를 가는데 왜 이슬람?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은 인도는 전체인구의 30%가 이슬람이라고 해도 그 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이슬람 국가인 것은 사실이다. 이슬람은 외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이슬람 사람들의 내적인 갈등과 추구는 오히려 매우 강렬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전투 정신과 폭력, 학대로 비추어지는 이슬람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파르나의 이슬람 청년들과 친구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고민과 진리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갈망과 절하게 되었다. 이슬람을 포기하고 불교에서 진리를 구하던 한 이슬람 형제, 그 형제는 부다 가야의 한 명상센터가 그동안 그가 찾아오던 안식처인 것만 같았지만 과학의 얼굴을 한 현대불교가 지니고 있는 바로 그 과학성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 형제는 자주 우리가 있는 곳을 방문하고 대화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자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에 압도되었다. 주님의 임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스스로 일하시는 것이었다.

비하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비엔클리지의 영어과를 졸업한 한 이슬람 형제도 삶의 현실 속에서 박차게 밀려오는 불안을 역력히 드러낸 채 우리의 공동체를 찾곤 한다.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생명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학살의 현장 자하나바드에서 우리 전도 여행팀이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두 이슬람 형제도 우리의 훈련을 함께 받고 싶어했다고 한다. 인도는 종교와 생활이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종교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등장할 때가 많다. 힌두교와 다른 종교간의 갈등은 아주 예민한 문제로 사회에 퍼져 있기도 하다. 비하르의 자하나바드에서는 울해에 들어서만 여섯 차례의 학살 사건이 있었다. 우리 제자훈련학교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둠이 강한 곳에 빛이 더욱 뚜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력과 죽음의 지배하는 학살의 현장, 그저 두려움과 자포자기만이 있을 것만 같은 그곳은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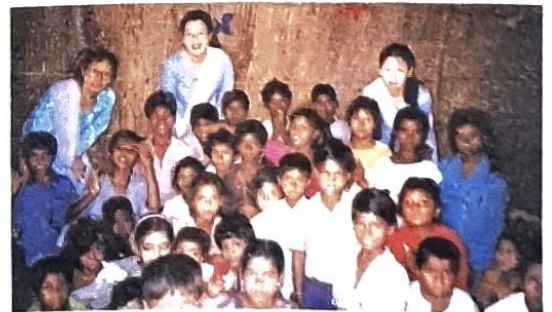
만큼이나 강렬한 복음에의 열망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 그것은 결코 갈릴리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주님의 임제가 개신 이곳 비하르에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중국의 지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표면에 나타났던 것처럼 감추어진 비하르의 교회가 여러 산들 가운데서 우뚝 솟은 봉우리로 나타날 날이 올 것이다.

이방의 비하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 4:16)

▶이영길 선교사 일행은 비하르 자하나바드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학살과 죽음의 공포에서도 주님의 임제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주님, 비하르의 젊은 종들을 지켜주시고 영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승리케 해 주시길" 춘천시교회 기도모임 성도들은 기도드리고 있다.



▲ 소그룹 성경공부, 기도방법을 토의하고 있다.



▲ 99년 2월 22일 슬럼(빈민촌)학교 입학식. (아이들의 눈망을 속에서 밝은 인도의 미래를 볼 수 있다)



▲ 99년 3월 29일 죽음과 분열의 땅 자하나바드에서 영적전쟁을 위한 원정기도 모습.

## 기독교 문화향상에 앞장선 3B Club

- 성경동화, 찬송가 경연대회 부활을 꿈꾸다 -

1968년 믿음의 좋은 젊은 신앙인들이 교회 일치의 차원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모임을 만들고 춘천의 복음화와 교회부흥,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과 기독교 문화 예술의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린이 성경동화대회와 찬송가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개발, 1974년부터 매년 교회를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교회와 주일학생들의 호응을 받아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참가한 교회들의 트로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맘을 졸여 할 정도로 경연 열기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당시의

유승 트로피들이 지금도 교회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 성대한 행사를 위하여 이순훈 장로는 초대장을 들고 50개 교회를 방문했던 일을 회고하였다. 이런 행사를 오늘날까지 계속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속문화의 교회

유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원들은 아쉬워하며 앞으로 성서화에 보탬을 위해 이 행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며 3B Club이 춘천시교회 사역의 한 부분을 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제일장로교회 소년소녀 기약 찬양단 특별연주 모습



▲ 1978년 중앙감리교회에서 찬송 경연하는 모습(구 교회) (이순훈 장로님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자료들)



▲ 성경동화·찬송가 심사위원들 모습(현 목사, 장로) (좌로부터 이순훈, 조병욱, 조충환, 이학규, 김해근 회원)